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흐린 날씨와 미세 먼지 속에서도 고운 빛깔로 피어나는 꽃들이 대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곳곳이 추악한 욕망으로 굶아 있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십시오. 사람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과 자기의 죄를 권력으로 덮으려 연대하는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환부를 도려내듯 이런 범죄의 뿌리를 찾아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53:4,5 인도자
- ▲ 교 독 문 125. 사순절(2)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조항범 권사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31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 함께
- ▲ 성경봉독 요 10:22-30
 - I. 인도자
 - II. 이성범 집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양
 - I. 주의 보혈
 - II.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 마중물 찬양대
- 청파 찬양대

말씀	어떤 목소리에 반응하는가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욕망에 찬 세상의 목소리나 그릇된 기준에 사로잡힌 나의 목소리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사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생명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른 소리만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가만히 멈추어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소리가 일러 주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홍 목사

기도에의 부름과 갈망

기도하는 삶으로의 부름은 곧 상처와 욕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라는 부름이다. '기도'라는 말은 폭력과 전쟁을 낳는 악순환을 과감히 끊는다는 뜻이요 전혀 새로운 거처로 들어선다는 뜻이다. 기도를 하게 되면 대화방식과 호흡방식과 공존방식과 학습방식이 달라진다. 그렇다. 기도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기도에 수반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에게 '기도'라는 말이 경건한 행위,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침과 저녁의 습관, 주일 예배, 식사 기도, 성경 구절, 기타 많은 것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기도와 상관이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거처를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기도야말로 꼭 필요한 것 한가지다.(눅10:42)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기도란 하면 할수록 - 기도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진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다. "내 삶이 곧 기도니까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 둘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늘 더 커지는 법이다.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는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갈망이 싹튼다. 우리는 그 분이 인파와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시는 모습을 보아왔다. 이제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된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분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은 위대한 갈망인 까닭이다.

사람들은 흔히 갈망이란 물리쳐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은 곧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슴과 영혼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견잡을 수 없이 날뛰며 마음을 몹시 어지럽히는 갈망도 있고 깊은 사색으로 이끌며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는 갈망도 있다. 어떤 갈망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어떤 갈망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막는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야말로 다른 모든 갈망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슴과 영혼은 피차 적이 되며, 우리의 내면생활은 혼돈에 빠져 결국 절망과 자멸에 이르고 만다. 신앙 훈련이란 갈망을 몽땅 뿌리 뽑는 일이 아니라 갈망끼리 피차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일이다.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 자신의 가장 깊은 바람과 다른 이들의 바람에 귀 기울여 들어보면 인간 심령의 갈망이 가장 잘 압축된 단어는 '연합'이다. 연합이란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연합을 찾기 전에는 설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우정과 결혼과 공동체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 친밀한 관계와 환희의 순간과 재능의 인정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 성공과 명예와 보상을 통해 찾으려 한다. 어디를 보든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은 연합이다.

연합의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다. 넘치는 기쁨뿐 아니라 지독한 고통을 유발하는 갈망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합의 갈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심어주신 분을 통해 채워진다는 것을 선포하러 오셨다. 잠시 지나가는 연합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연합의 그림자일 뿐이다. 연합의 갈망을 불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로막는 진정 위험한 일이다. 연합의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 삶은 생명력을 잃고 우리 마음은 냉담해진다. 진정 영적인 삶이란 모든 갈망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하나님의 품안에서 쉼을 찾기 전에는 쉬지 못하는 삶이다.

- 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복있는사람) 중에서

오래된 기도

- 이문재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 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뿔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 마시기만 해도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인성 최소라 곽수정 구재원 권미숙 김도윤 김명희b김영락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지훈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김태한 김필순 김혜라 김희선 김희진 박홍재 남윤경 노신후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재영 이현정 박준민 최광희 박지혜 백원선 변재민 이소혜 서수진
 서지온 신영옥 양은혜 양정규 오유경 김현동 오은영 우경환 유성애 윤성종
 김윤정 윤정득 이부곤 이승지 이재우 배이화 이주경 안상숙 이한림
 김명희a 임선자 임주빈 최현옥 임진엽 임찬양 임창선 장현희 정연희
 정종삼 정택중 조경환 조순덕 조영순 조영훈 조호진 최승주 최옥진 정수현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최진성 최영은 하현일 한인철 조운숙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강민지 김반야 김용길 최영혜 김은지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재환 김진선
 노용래 박미희 박병구 김인순 박진영 변종복 김은영 안홍숙 오정인 우미나
 방대현 우윤석 유동호 유수진 이건호a김보민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순이
 이유일 김미희 이은옥 이재문 이재삼 전정현 이진희 안준용 안태호 임종수
 임찬양 전근우 지윤미 채일석 함새나 허명선 무명2

생일감사헌금

윤수진

녹색꿈헌금

고희도 김영호 이미정 무명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설립감사예배** : 세종청파교회 설립감사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세종시 세종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3. **후원음악회** : 아프리카 난민들로 구성된 밴드 '스트롱아프리카'와 안준호 목사가 운영하는 '달려라커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프리카 난민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다음 주일(24일) 오후 1:30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4.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성경본문을 묵상하고 실천사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 커피 대접 : 김경연 집사

다음 주 설교 본문	딤후 2:1~7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안종일	오자영	김재흥

3월	1부 영접위원	박명제	헌금위원	서미경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송형운		이순용 김신실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권미숙		

오늘 식당 봉사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량 허희라 남윤경 임주빈 이주경
다음주식당봉사	이오복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안정숙 허신열 조장형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